

서두

‘스칸디나비아’ 하면 사람들은 바이킹을 연상할 것이다. 그러나 스칸디나비아(덴마크·노르웨이·스웨덴)는 북구 5국(핀란드·아이슬란드 포함)과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세계 최고의 복지 및 민주주의 국가이다.

1975년 당시, 극히 소수의 동양인만이 찾던 스칸디나비아가 오늘날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된 배경에는 열심히 사회에 공헌한 국민들, 특히 뛰어난 사람들의 재능·열정·노력 그리고 기다림이 숨어 있다. 최초의 한국 유학생으로서, 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스칸디나비아와 함께해온 필자가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 지금에서야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첫째, 이 지역에 관한 기사를 쓰도록 지면을 제공해준 한국 언론에게 감사를, 둘째, 나의 외국생활을 궁금해했던 친지들에게 일종의 보고서를, 셋째, ‘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라’고 가르치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를, 그리고 36년 전 ‘솔베이지송’에 반해 무작정 찾아온 한 동양여성을 깊은 인간애로 맞아주고 보살펴준 스칸디나비아에 작은 보답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.

모쪼록 이곳에서의 소중한 일부의 내 경험들이 미지의 독자들에게 스칸디나비아를 바로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.

2011년 5월, 핀란드 헬싱키에서
이희숙

MY SCANDINAVIA

노르웨이 • 11

기나긴 겨울을 이기고 나온 축제 • 13

미드서머 이브(1991. 6)

그린 윈터 그리고 화이트 윈터 • 20

노르웨이 I (1984. 2)

노르웨이 II (1989. 5)

파도 위에서 ‘나’를 재발견한다 • 33

스카게라크 해협(1991. 6)

기차로 방문, 국민에게 신고하는 새 국왕 • 43

하랄드 왕(1991. 9)

평화의 안식을 갈구하던 호숫가 갈색 통나무집 • 53

에드바르 그리그(1990. 3)

자신만을 즐기는 남편 앞에 아내는 영원한 노라입니다 • 64

헨리크 입센 I (1990. 8)

헨리크 입센 II (1990. 11)

암시적인 색채와 조형으로 표현된 존재의 추상적 테마 • 75

에드바르 뭉크(1991. 1)

지금은 시대가 여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• 86

그로 할렘 브룬틀란드(1987. 1)

저의 주위는 항상 낭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• 96

한스 노르만 달(1989. 5)

일 때문에 가정의 틀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• 102

카시 쿨만 피베(1990. 10)

날 때부터 손가락 마디가 없고, 다리도 하나 • 109

안 마리트 세베르네스(1993. 10)

바다는 나의 집, 잠수함은 나의 침대 • 114

솔바이 크레이(1996. 2)

핀란드 • 125

보드카와 사우나 그리고 멜랑콜리의 나라 • 127

핀란드(1988. 12)

흰 눈과 파란 하늘, 초록의 핀란드 정신 • 138

잔 시벨리우스(1990. 8)

우리의 생은 하나의 무지개입니다 • 148

토베 얀손(1988. 12)

자연의 부드러운 질감을 그대로 간직한 목공예품 • 158

카이야 아리카(1990. 9)

가장 평범한 여자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합니다 • 165

엘리자베스 렌(1990. 10)

보라색의 크레이지 마돈나 • 173

비르피 키누넨(1996. 3)

신념 강한 여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• 184

엘라 힐투넨(1996. 12)

춤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70세 소녀 • 189

아이라 사물린(1997. 9)

스웨덴 • 199

사랑스러운 이기주의자의 나라 • 201

스웨덴(1989. 12)

북구의 파스텔 꿈에 젖은 예술과 혼을 투사 • 211

에우겐 왕자(1992. 여름)

서로 존경하는 분위기 속에 왜 일이 안 될까요? • 218

크리스티나 유테르스트럼(1989. 12)

존재한다는 소중함만으로도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• 225
잉게게르드 트로에드손(1991. 12)

덴마크 • 231

따뜻함과 친절함이 넘치는 동화의 나라 • 233
덴마크(1990. 7)

꽃과 램프, 불꽃놀이가 어우러진 꿈의 동산 • 240
티볼리(1993. 8)

우화 속의 안데르센을 살아 있는 음악으로 창조 • 247
칼 닐센(1990. 5)

미운 오리새끼, 성냥팔이소녀, 인어아가씨의 오덴세 • 256
크리스티안 안데르센 I (1990. 7)
크리스티안 안데르센 II (1996. 4)

『아웃 오브 아프리카』의 하얀 렉스테드룬트 • 267
카렌 블릭센(1992. 7)

간결하고 신선한 디자인의 아름다운 세라믹 • 277
본 빈블라드(1990. 7)

자연은 제게 있어 하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• 285
엘리자벳 용게슨(1990. 7)

삶의 율동을 예술과 사랑으로 승화시킨 프리마돈나 • 291
안네 마리에 베셀(1991. 4)

여왕보다 평범한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• 299

마그레테 II세(1991. 7)

아이슬란드 • 307

화산과 사가 문학, 그리고 쾌락주의 • 309

아이슬란드(1991. 12)

행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• 318

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(1987. 10)

제 작품은 팔이 없기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• 328

새문드프 발디머손(1990. 1)

나는 훌륭한 여자가 되고 싶었고, 그것을 실현시켰죠 • 338

구두른 아그나스도티르(1992. 2)